



▲ 권인희씨가 축하의 꽃다발을 받고 있다



▲2002년 방통대 졸업시의 기념사진

자동의 서울맹학교에 들어가 21세에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다. 서울맹학교에 들어가기 전 그는 공박사의 생활지도원에 다시 들어가 1년 동안 공박사의 유니온타자기회사에서 알바이트를 하여 맹학교의 육성회비와 잡비 등 학자금을 미리 벌었다. 이때 그의 직책은 제작감사원으로서 연구실에서 타자 속도를 실험하는 것이었다. 회사에서는 그가 계속 감사원으로 불박혀 있기를 바랐으나 평생 타자기만 두드리는 단순한 일을 하다 말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맹학교에 진학했던 것이다.

서울맹학교를 나와 그가 사회에 첫발을 디디며 호구지책에 소용되는 것은 학과로 배운 침구鍼灸와 안마술이었다. 이 방면에서도 그의 재능은 발휘되어 자율신경 조절에 의한 위궤양과 류마티스 치료에 능했다. 이같은 난치병을 다룸에 따라 그의 침구와 안마술은 가는 곳마다에서 급속히 입소문으로 퍼졌다. 그리하여 24세가 되던 1976년에는 시각장애인으로서 구원의 손길을 얻는 것과 다른 없는 결혼에 성공하여 서울 태생의 규중처녀를 아내로 맞아 정릉에서 신혼 살림을 차리고 생활도 넉넉하게 꾸려나갈 수 있었다. 그러다가 1981년 국보위國保衛 시대에 무면허의료행위 집중단속에 걸려 벌금 10만원을 물고 전과자가 되는 충격적인 일을 당했다. 맹학교에서 학과로 익힌 것을 나와서 시술하니 실정법에 걸린 것이었다. 이후 이 일을 걷어치우고 우이동에 있는 맹인대린원盲人待隣院이라는 사회복지법인의 직업보도교사로 들어가 밖에서는 불법인 침구교육을 담당했다. 그랬더니 5년을 살던 가정이 파탄나고 아내가 이혼을 하여 나갔다.

대린원 교사직도 치우고 미아리의 거적집 셋방 하나를 얻

어 들어와 노모와 함께 누워 한숨을 끼지게 쉬었다. 노모가 앞뭇보는 외아들을 홀로 두고 눈을 감을 수는 없었던지 ‘애야, 너무 근심 마라. 하다 정안되면 우리 두 식구 연탄 한 장이면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였다. 170센티 신장에 체중 45kg로 피골이 상접한 형상의 그는 그렇게 죽음을 기다렸다. 그런 어느날 그 빈민촌으로 중년 남자 한 사람이 소란스레 신음하며 업혀 들어왔다. 무슨 힘쓰는 일을 하다 허리가 빠진 채 꼼짝을 못하고 비명을 질러대 큰 소동이 난 나머지였다. 앞드려 눕혀 놓고 만져보니 척추에 탈골이 일어난 것이었다. 잠시만에 튀어나온 부분을 맞추고 침을 시술하자 그는 멀쩡한 사람이 되어 걸어 돌아갔다. 이로부터 삼시간에 입소문이 퍼져나가 여기저기에서 어디가 아픈 사람이 발꿈치를 이으며 찾아들었다.

이번에도 또 무면허 의료행위로 잡혀가 망할 수는 없었다. 동지를 규합하고자 바깥나들이를 시작한 그는 동병상련의 여러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한국맹인침사針士협회’라는 것을 결성해 임원진을 구성하고 요로에 탄원서를 내 대통령 이 이를 보고 ‘허가나 양성화는 해줄 수 없지만 실제 단속을 하지 말고 묵인해 적절히 활로를 터주라’는 지시를 내리게 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20만 시각장애인 사회에서 그의 명성이 대변에 오르고 생활도 안정이 되어 1984년에는 초취와 결별한 지 3년 만에 반실명의 시각장애인과 재혼을 하여 수재인 두 딸을 얻게도 되었다. 1985년에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협회를 만들어 그 사무총장이 되고 1988년 2월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유권해석’이라는 것을 받아내 시각장애인의 침구시술을 합법화하였다. 1995년에는 시각장애인복지협회의 회장이 되고 2000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는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2002년 2월에 방송통신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건국대 행정대학원 국제법무학과에 들어가 거기에서 석사를 받고 나온 후 서강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이수한 후 이번에 논문이 통과되어 그로서는 58세 필생대망의 법학박사모를 쓰게 된 것이었다.

인·물·動·靜

권순한 (소이상사주 회장 · 68)씨는 6월 28일 오후 7시 서울 회현동 렉스호텔에서



열린 한국외국어대 총동문회 대의원 총회에서 동 상임이사회 추천으로 총동문회 제28대 회장으로 만장일치 선출되었다. 2년 임기의 새 회장으로 선출된 그는 취임을 수락하며 ‘동문회관을 건립하고 장학재단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외대 스페인어과 63학번인 그는 한국수입업협회를 지내고 현재 한국무역협회의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경북 안동 출신으로 2009년 12월에는 안동대 인문사회과학연구원과 경영연구소가 주는 제4회 ‘최고경영자대상’을 받기도 하였다. 이 상은 안동 및 경북 북부 지역 출신으로 건전한 경영철학을 소유하고 탁월한 경영능력을 발휘해 국가경제와 기업발전에 공로가 큰 경영자를 발굴해 선정하는 것이었다. 1983년에 그가 설립한 소이상사는 품질과 디자인 면에서 최고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의료기기 ‘엑스레이 그리드’와 필름 카세트·휴대용 엑스레이·고주파 촬영기 등을 개발해 미국·독일·영국 등 세계 6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권오철 (하이닉스반도체 사장)씨는 7월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임시총회에서 제8대 협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권협회장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1984년에 현대그룹에 입사하여 현대상선·현대전자에서 근무했으며 하이닉스에서 최고재무책임자·전략기획실장·대외협력실장·중국법인장 등을 지내고 작년 3월부터 사장으로 취임해 2010년 연간 12조원의 매출에 3조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하이닉스 제2의 도약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 전임 협회장은 삼성전자의 권오현 사장인데 전전임 황창규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사장의 중도퇴임으로 잔여임기를 맡았던 권오현 회장이 2013년 2월까지의 1년 6개월 후반임기를 하이닉스 쪽에 양보하고 물러남에 따라 권오철 회장이 일단 그 잔여임기를 승계받게 되었고, 이로써 11년 동안 삼성전자에서 협회장직을 독식하던 것이 끝나고 하이닉스와 양측이 순번으로 협회장을 맡는 체제로 돌아가게 되었다. 협회장직을 사임하고 물러나는 권오현 사장은 ‘협회장을 맡은 3년 동안 국내 반도체 산업은 최악의 위기와 최악의 순간을 모두 경험했다’며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반도체가 선도적 역할을 했다. 이는 회원사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 권오철 협회장이 반도체 업계를 위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권오철 신임 협회장은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영난만을 신경쓰다가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를 걱정해야 하는 위치에 오르니 부담과 책임이 앞선다. 반도체 소자·부품과 장비, 시스템 LS와 메모리 반도체 등의 분야가 계속 균형을 가지고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권혁인 (전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씨는 7월 4일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그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3년이다. 그는 취임사에서 ‘지금 광해관리공단을 포함한 공공부문은 주변의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사 선진화와 사회적 책임 실현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받고 있다. 우리는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등 주요 핵심고객에 대해 정책 역량을 모으고 더욱 생산적인 조직으로 거듭 나야 한다’고 하면서 공직에 입문한 후 청와대 등 중앙과 지방행정의 핵심 분야를 모두 체험한 자신의 경험과 인맥이 공단의 힘을 기르고 위상을 높이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 하였다. 그는 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강



릉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했으며 강원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행정고시 19회에 합격하여 공직에 들어온 뒤 삼척군수와 강원도 기획관리실장, 대통령비서실 인사관리비서관, 행자부 지방행정부부장 등을 지내고 2010년초에는 강원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자로서 출마를 선언하고 ‘강원도가 외로운 이유’라는 저서를 내기도 하였다.

권재진權在珍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 북야공파 야옹공계 예천 맛질 문중 35世 · 58세)씨는 8월 1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법무부장관에 취임했다. 대구에서 성장하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시 20회로 검찰에 입문한 그는 상주지청장·부산지검 공안부장·서울지검 형사부장·통영지청장·전주지검 차장·서울 북부지청장·남부지청장·울산지검장·대검 공안부장·대검 차장 등을 지냈다. 평소 친화력이 뛰어나고 박학다식하며 사안의 핵심을 꿰뚫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정평이 있고 외유내강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검찰 조직원들의 두터운 신망을 얻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현대차 취업비리, 산업재해보험금 부당편취, 수입돼지고기 불법유통, 국방부 상대 조달사기 등의 수사를 지휘하고 전주지검 국가배상심의위원장 시는 미공군비행장 근처 버퍼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울산지검장 시는 매월 사회단체와 대학생 및 교사들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열린 검찰’을 실천했는데 이러한 활약으로 검찰총장 후보의 1순위에 올랐다가 임채진 전 청장 사퇴 후 사시 2년 후배인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 후보로 지명되자 바로 검찰을 떠났었다. 야인에서 다시 청와대민정수석으로 발탁되어서는 대통령의 사정 작업 등을 충실하게 뒷받침하여 능력과 성품·충성심 면에서 절대적 신임을 얻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장애인 생존권 관련 분야를 물으려면 당장 그가 세계에서 유일한 전공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그는 필자에게 반드시 자기 생애에 3취의 결혼에 성공하여 아들을 낳겠다고 하면서 자기 팔자에 세 번 결혼을 하고 아들 하나가 태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두 번째 결혼한 부인과 17년 만에 파경이 되어 당시 독거중이었다. 이번 축하연장에는 2008년 4월에 결혼한 그의 새 부인 김화옥金花玉씨가 옆에 나란히

앉아 부군의 수인사를 돕고 있었다. 그리고 작년, 2010년 1월에 42세의 그 부인에게서 초산으로 ‘솔’이라는 아들을 얻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선친이 51세에 기적적으로 안동권씨 감찰공파의 13대종손을 얻은 데 이어 이번에 그가 선친보다 6년이 늦은 57세에 그 14대종손을 낳고 만 것이다. 경사도 이쯤이면 깜짝 놀라 머리가 어지러울 일이 아니겠는가

<사진 · 글 權五燾>